

힘의 우위확보는 전쟁 방지의 요체

해군사관학교 제35기졸업식 유시

1981년 4월 9일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내외 귀빈과 학부모 여러분!

본인은 오늘 해군사관학교 제35기 졸업식에 즈음하여 먼저 지난 4년간의 엄격하고 고된 교육훈련을 마치고 이제 호국의 전통에 빛나는 우리 나라 해군의 간부의 일원으로 첫 출발하는 졸업생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축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아울러 여러분과 같이 훌륭한 청년장교를 배출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온 해군사관학교의 교장 이상해 제독을 비롯한 교수, 교관단과 학부모 여러분의 노고를 깊이 치하하는 바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바쳐 일하게 될 바다는 군사면에서는 물론 원유 등의 수송을 위한 해군항로의 확보와 해양자원의 개발 등 경제적 측면에서도 갈수록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계 각국은 다투어 영해를 확장하고 경제수역을 설정하는 등 해양분할시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추세입니다.

이같은 추세 속에서 우리 나라 해군이 당면한 과제는 철저한 연안방어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공산집단의 해상침투 저지는 물론 영해의 수호는 우리의 생명선을 지키는 일이라고 해도 조금도 지나친 말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들은 울진·삼척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규모 무장공비의 남파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한편 온갖 수단방법을 다해 간첩을 잠입시키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해군은 그 동안 북한공산집단의 각종 해상도발을 그때마다 단호히 격멸하여 전후방을 통한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여 왔습니다.

또한 각종 함정과 장비의 현대화에 힘써 우리의 해군력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우리 기술진에 의해 건조된 최신예함인 울산함이 금년초 취역한 것은 자주국방을 위한 우리의 굳은 의지와 역량을 입증해 준 일로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비 현대화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전력증강을 위한 노력일 것입니다.

그 동안 도입된 「미사일」 등 각종 현대장비조작에 필요한 기술의 축적은 물론 미해군과의 연합작전 능력 강화 등을 통하여 우리 해군은 한 치의 빈틈도 없는 해상경계태세를 구축해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해상침투도 이를 저지하고, 어떠한 도전도 즉각 응징할 수 있는 임전태세를 갖추었을 때 그 누구도 감히 우리의 바다를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힘의 우위를 확보하는 일이야말로 침략기도를 사전에 분쇄하고, 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요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임장교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동족간의 전쟁만은 회피하고자 최대의 성의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1·12제의 등 남북한간의 대화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또 자주국방 역량강화에 힘쓰고 있는 것도 이것이 모두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첩경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또다시 적이 오판하여 무분별한 도발을 해올 경우 우리는 반드시 이를 물리치고 승리해야만 합니다.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최신장비와 현대식 무기를 갖추는 일에 덧붙여, 필승의 신념과 사기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해군은 물론 모든 군인의 사표가 되고 있는 충무공 이순신장군은 일찍이 이러한 교훈과 진리를 실천을 통해 입증해 주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우리의 병선이 결정적인 수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세계해전사에 빛나는 대첩을 거둔 것은 바로 정신전력의 승리였습니다.

장군은 몸바쳐 나라를 구하겠다는 충성과 멸사보국의 일념을 솔선 실천함으로써 부하 장병들에게 일당백의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었던 것입니다.

졸업생 여러분은 군의 중추는 곧 장교이며, 군의 사기와 정신전력은 지휘관의 자세에 달려 있음을 명심하여 유서깊은 이곳 목포만에서 함양한 투철한 애국심과 엄정한 군기를 생활화하여 부하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본인은 신입장교 여러분에게 뜨거운 성원을 보내면서, 임지에 가서도 충무공의 정신과 일생을 귀감삼아 충성스런 군인의 길, 영예로운 지휘관의 길로 꺾끗이 매진해 주기를 당부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을 중심으로 상하가 사랑과 존경으로 굳게 단결하여 정예해군을 이룩하고 굳건한 안보태세의 토대 위에 정의로운 복지국가와 통일조국을 성취할 것을 여러분과 함께 굳게 다짐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졸업생 여러분에게 거듭 축하를 보내며, 여러분의 무운장구를 기원하는 바입니다.